

2024-1 TU Graz 교환학생 후기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2019-11930 김준영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1학기에 오스트리아 TU Graz로 교환학생을 갔다 온 김준영입니다. 이미 수많은 후기들이 너무 잘 정리되어 있어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들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히 적어보고자 합니다.

1. 출국 전

1-1. 비자

저의 경우에는 직접 오스트리아 대사관에 메일을 보내 예약을 한 후 직접 가서 비자를 받았습니다. 기억나는 점이라면 비자를 발급받는 모든 기간에 대한 숙소와 오가는 교통편 예약 문서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서 귀국 전 기숙사 계약이 끝난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Airbnb에서 예약을 한 후 예약 확인 문서를 잠시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그라츠 공항에서 비엔나로 돌아오는 건에 대해서도 Flixbus로 예약 후 문서를 이용하였습니다. (나중에 OBB 기차를 통해 돌아오려고 취소했지만 환불이 아닌 바우처로 환불되었습니다)

1-2. 기숙사

기숙사는 학교에서 정식으로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여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수많은 업체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무난한 곳은 Oead라는 기숙사 업체가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는 여러 장소에 기숙사가 있는데 저는 Moserhofgasse에 위치한 기숙사를 이용하였습니다. Moserhofgasse는 TU Graz의 Inffeldgasse 캠퍼스와 매우 가까운데(걸어서 5분) 저의 경우 컴퓨터 공학 수업만 수강하여 모든 강의가 Inffeldgasse 캠퍼스에 위치해 있어서 편했습니다.

1-3. 준비물

아시아 식료품 점이 있기 때문에 가서도 충분히 구매할 수는 있는데 제 경우에는 라면, 김, 김치 등을 좀 더 가져갔으면 좋았겠다 생각했습니다.

현금 같은 경우에는 그라츠에서는 기숙사 앞 케밥, 피자 집에서 사용한 것 외에는 거의 사용한 적이 없었지만 가서 여행을 다니면서 사용할 경우가 종종 있으니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넉넉히 가져간 후 남을 것 같아서 기숙사 비용을 내는데 현금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ESN 픽업 서비스를 신청하여 늦은 밤 그라츠 중앙역에 도착했지만 기숙사까지 잘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ESN buddy program도 관심 있으시다면 출국 전에 미리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2. 출국 후

2.1 교통

그라츠에서 교환학생을 하면서 그라츠라는 도시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자전거를 통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웬만한 위치는 구글 맵을 통해 검색했을 때, 자전거가 가장 빠르게 나올 정도로 (물론 표시되는 시간보다는 오래 걸립니다) 그라츠는 자전거를 이용하기 매우 좋은 도시입니다. 저의 경우 Willhaben이라는 중고 사이트에서 65유로에 자전거를 구입해 매우 잘 사용하고 60유로에 다시 팔 수 있었습니다. (돌아올 때 다시 팔 수 있으니 구입하실 분들은 좋은 자전거를 찾는 걸 추천 드립니다)

그 외에 그라츠 내에서 교통편을 검색할 때 구글 맵으로는 나오지 않을 경우 busbahnbim 앱을 사용해보시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2 수업

서울대학교에서 듣고자 했던 수업과 유사한 수업을 신청하여 들었습니다. 그 중 기억나는 수업은 Operating Systems(VU) 수업으로 7ects(서울대 기준 3-4학점) 수업이지만 컴퓨터 공학부 학사 과목 중 가장 악명 높은 수업으로 4인 1조 팀 프로젝트가 주가 되어 자체 운영체제를 보완, 구현하는 수업입니다. 로드가 적지 않고 처음 보는 외국인과 함께 팀 프로젝트를 한다는 점에서 힘들었지만 또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이처럼 VU 과목은 이론과 수업이 합쳐져 있는 과목으로 수강했던 또 다른 과목으로는 Embedded Systems 라는 과목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이 과목의 경우에는 VO(이론), LU(실험) 과목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처럼, 따로 존재하는 과목의 경우 꼭 같이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점 인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수업은 서울대학교와 같이 고정된 날짜와 시간에 수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들었던 Operating Systems는 학기 초반부에 몰아서 이론 수업을 진행하는 등 불규칙적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Studo 앱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그 외에 여러 도움이 되는 Studo 라는 앱을 이용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2.3 여행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자연 경관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크로아티아(플리트비체)와 이탈리아(돌로미티) 를 추천 드립니다. 또한, 기숙사 계약이 끝난 후에 귀국까지 시간이 남을 경우 친구의 방에 짐을 잠시 맡기고 그라츠 주변에 위치해 있는 Gruner see라는 초록 빛깔 호수와 기차를 통해 갈 수 있는 할슈타트, 인스부르크 등을 갔다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부분 OBB(기차) 혹은 Flixbus(버스), Ryanair(비행기)를 이용하게 되는데 ESNcard 를 통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OBB의 경우 Vorteils card Jugend라는 청년 연간 할인을 이용할 수 있는데 Standard 노선에 한해서 할인이 되기에 여행 계획과 함께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2.4 이 외에

우선 계좌의 경우 트레블 월렛 하나로도 충분했어서 계좌를 따로 만들진 않다가 기숙사 보증금을 위해서 돌아오기 직전에 N26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유심은 HoT 마트에서 구매하여 사용했습니다. (한국에 비해 통신비가 매우 저렴하고 대부분의 주변 국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충전한 돈은 환불하기 어렵습니다)

Egiraffe 사이트를 통해 기출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라츠에서 부러웠던 것 중 하나는 USI를 통해 정말 다양한 스포츠 과목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펜싱, 윈드서핑, 카약을 배우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카약은 수강신청에 실패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든 다양한 스포츠 과목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 드립니다.

3. 마치며

4학년에 교환학생을 가서 여행을 하며 놀아도 되는 것인지, 적지 않은 돈과 시간을 아깝지 않게 사용하는 것일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교환학생을 경험할 수 없겠다 라는 생각과 색다른 환경에서 살아보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고 돌아오고 나서는 특별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았더라면 만나지 못했을 경험, 어려움 등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또 만약 떠나시기로 정했다면 큰 도움이 되는 후기들이 많으니 모두 읽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서울대 공과대학 국제협력실과 총동문회에 감사드립니다.